2016 도시텃밭

고랑이랑이

□ 장소. 청주시 옛 연초제조창 광장

□ 일시. 2016. 4. 9 ~ 11. 26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CHEONGJU CULTURAL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2016 도시텃밭 고랑이 이랑이 세부일정

일시	사업	사업내용	비고
4.09(토) 10시~	개장식 및 밭일구기	-개장식 -밭일구기(거름섞기, 고랑만들기, 돌고르기)	
4.15(토) 10시~	파종 및 모종	-공동 모종 나누기 및 심기, 씨앗 파종	※ 모종 공동구매 신청 받아요
5.14(토)	함께 농사짓는 날	-잡초제거 -삽겹살day/야채 수확해서 점심식사 하기	
6.11(토)	함께 농사짓는 날	-잡초제거/점심나누기	
7.09(토)	함께 농사짓는 날	-잡초제거 -텃밭 콘테스트, 농작물 나눔 시장	
8.13(토)	함께 농사짓는 날	-잡초제거 -한여름밤 가족영화보기	
8.27(토)	김장파종의 날	-씨앗파종 및 모종심기	
9.10(토)	함께 농사짓는 날	-잡초제거 -'도시텃밭 고랑이 이랑이 작은 콘서트'	
10.08(토)	함께 농사짓는 날	-잡초제거 -배추보쌈에 삼겹살 먹기	
11.26(토)	텃밭 마무리	-텃밭 마무리 -우수텃밭 시상 및 평가	

※ 꼭 읽어주세요

① 날씨 및 기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매월 진행되는 함께 농사짓는 날 행사는 되도록 참여 바랍니다.

③ 함께 농사짓는 날은 농사일도 하지만 작은 문화 행사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일정표 참조)

④ 4월부터 격주로 바로 옆 마당에서 공예장터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알리고, 소통하고, 나누기

도시텃밭을 하며 재미있는 일, 신기한 일, 알리고 싶은 일, 나누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공동 일정은 문자를 보내기도 하겠지만 밴드 단체방을 만들었습니다. 수시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도시텃밭 밴드방 운영

- 그룹명(환경연합 도시텃밭 고랑이이랑이) : 텃밭 일정, 방제, 공동 작업 등 알림, 개인은 텃밭 자랑사진이나 활동내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② 페이스북에 사진 과 글 올리기 - 청주충북환경연합 공유

- 페이스북, 카톡, 홈페이지(http://cjcb.ekfem.or.kr)에 일기, 사진 올리고 자랑하기 : 연말에 선물증정

도시텃밭 어떻게 하죠!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최근 참살이 바람을 타고 텃밭을 이용해 직접 채소를 길러 보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싱싱한 무공해 채소를 식탁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텃밭에서 손수 가꾼 싱싱한 상추와 쑥갓쌈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보람과 행복의 쌈이 아닌가? 거기다 다양한 모양과 색상을 가진 채소는 그 자체가 아름답고, 맛있는 자녀의 체험학습장이 된다. 한 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과학적 사고와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01. 일반농법과 텃밭채소 가꾸기의 차이점

일반농법이 단위 면적당 상품이 있는 농작물을 저비용으로 많이 생산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말농장이나 텃밭 가꾸기는 가족과 함께 키우고 가꾸고 수확하는 즐거움과 안전하고 맛있는 웰빙 밥상을 책임지며, 나아가 이웃과 나눠 먹는 즐거움을 더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성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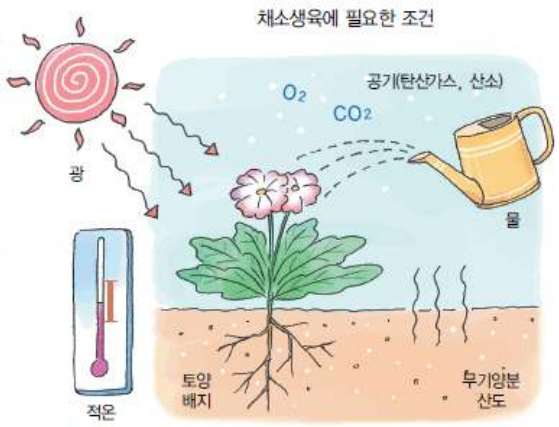
❁ 텃밭의 7가지 즐거움 ❁

1. 자연의 소중함, 농부의 고마움, 나누는 기쁨을 알 수 있다.
2. 친환경 농산물 재배로 가족 건강을 지키고 운동효과까지 볼 수 있다.
3. 제철에 맞는 작물을 제배하고 먹을 수 있다.
4. 자녀들에게 살아 있는 자연학습을 시킬 수 있다.
5. 다양한 작물을 심어 작물의 특성을 익히고 여러 가지 채소를 맛 볼 수 있다.
6.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된다.
7. 작물을 재배하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의 도움을 준다.

❤ 텃밭에서의 에티켓 ❤

1. 친환경 농사를 위해 만든 도시텃밭이니, 농약과 화학비료는 쓰지 않아요.
2. 농부님들 서로 만날 때 마다 반갑게 인사해요. “활짝 웃으면서”
3. 자주 보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게 잘 자랍니다. 일주일에 한번은 들러주세요.
4. 덩굴 작물과 키 큰 작물은 다른 밭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5. 사용한 농기구는 잘 닦아서 제자리에 놓아야 해요.
6. 밭을 지나다닐 때 옆 밭의 작물을 밟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7. 쓰레기가 발생하면 꼭 집으로 가져가 주세요. 꼭~~~요

02. 텃밭채소를 가꾸기 전에



• 채소의 온도 적응성

분 류	채소 종류
호온성 채소 (따뜻한 기온 하에서 잘 자람)	고구마, 토란, 마, 우엉, 강낭콩, 오이, 호박, 고추, 가지 등 열매채소류
호냉성 채소 (서늘한 기온 하에서 잘 자람)	상추, 미나리, 무 등 잎, 줄기, 뿌리 이용 채소, 완두,잠두, 딸기,감자,

• 채소의 햇빛 적응성

구 분	채소 종류
강한 광이 필요한 것	박과채소, 가지과 채소, 옥수수, 딸기, 양파
약한 광에도 견디는 것	토란, 생강, 엽채류, 파류, 머위, 부추
약한 광을 좋아하는 것	미나리, 참나물
어둠에 재배하는 것	양송이, 연백채소(파, 부추, 아스파라거스)

• 해 길이에 따른 분류

분 류	채소 종류
해가 길어질 때 꽃이 피는 채소	시금치, 상추, 무, 당근, 양배추, 갓, 배추, 감자
해가 짧아질 때 꽃이 피는 채소	딸기, 옥수수, 콩
해 길이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자라면 꽃이 피는 채소	고추, 토마토, 가지, 오이

• 토양 수분의 적응정도에 따른 분류

분 류	채소 종류
다소 건조해도 잘 자라는 채소	고구마, 수박, 토마토, 땅콩, 들깨, 호박
다소 습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 채소	토란, 생강, 오이, 가지, 배추, 양배추
습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 채소	연근, 미나리

• 토양 산도의 적응정도에 따른 분류

분 류	채소 종류
산성 땅에 약한 채소	시금치, 완두, 잠두, 강낭콩, 양파
산성 땅에 다소 약한 채소	양배추, 상추, 셀러리, 배추, 부추 등
산성 땅에 다소 강한 채소	토마토, 가지, 오이, 호박, 옥수수, 당근, 무, 순무 등
산성 땅에 강한 채소	수박, 토란, 토마토, 감자 등

같은 종류 또는 같은 과의 채소를 같은 토양에 연이어 재배하는 것을 '이어짓기'(연작)라고 한다. 이어짓기를 하면 병해충 발생이 많고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연작 장해가 나타난다. 연작 장해를 막기 위해서는 채소의 종류를 번갈아 재배하는 '돌려짓기'(윤작)가 바람직하다. 텃밭 가꾸기에서도 계획적으로 작물 배치를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텃밭에서 한 작물을 재배한 후 밭을 비워야 하는 연한(연수)은 대개 1~2년, 3~4년, 5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채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밭을 비워야 하는 기간 / 채소 종류	연작장해가 적다	1년	2년	3년	5년
명아주과		시금치, 테이블비트			
배추과		양배추, 무, 브로콜리, 래디쉬	배추		
화본과	옥수수				
박과	호박		오이		
국화과		쑥갓, 상추			
산형화과	당근				
가지과		셀러리, 삼엽채	감자	토마토, 피망	가지
메꽃과	고구마				
콩과					
백합과	양파, 부추	파, 염교			

03. 텃밭이나 주말농장은 어떤 곳이 좋을까요?

우선 햇빛이 잘 들고 토양이 비옥하고 물 빠짐이 좋고, 또 수시로 물을 줘야 하므로 물을 사용하기 편리한 곳이 작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텃밭 위치로 적당하다.

*텃밭 가꾸기에 좋을 땅을 고른다.
· 진흙과 모래성분이 적당히 섞여있는 참흙 및 모래
· 참흙 땅 부식질 함량이 많고 양분과 수분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곳
· 햇볕이 잘 들며 매연이나 먼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땅
· 사는 곳과 가까우며 텃밭 주위에 물이 있는 곳

채소가 잘 자라기 위해 필요한 조건
이어짓기 가능한 연한
텃밭채소 성공의 기본은 양질의 퇴비 확보
퇴비는 산야초나 짚, 왕겨, 등 식물성재료에 가축분을 첨가해 충분히 부숙시킨 것이 좋다. 만들기 어려우면 시중에서 파는 양질의 완숙퇴비를 구입해서 사용해도 된다.

양질의 완숙퇴비사용

Tip. 완전희 부숙된 퇴비는 냄새가 없다. 주는 량은 작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3평) 퇴비 12~15㎏과 석회 1.2㎏을 밭 전면에 골고루 뿌려 준다.

04. 씨앗과 모종

□ 씨앗을 심을까, 모종을 심을까?
채소는 심는 방법에 따라서 씨앗을 뿌리는 것과 묘를 사서 심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씨앗을 뿌려 키우면 처음부터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있지만 기간이 너무 길어서 지루할 수 있다는 점과 초보자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패의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초보자의 경우 고추, 가지, 토마토처럼 모종을 기르는 기간이 60~80일 정도로 긴 것은 5월경에 종묘상(때로는 꽃집)에서 키워 파는 모종을 사서 심는 것이 좋다.
- 씨앗을 직접 뿌려 키우는 것 : 상추, 쑥갓, 열무, 시금치, 엇갈이배추, 강낭콩, 콩, 옥수수 등
- 모종을 사서 심는 것 : 고추, 가지, 토마토, 오이, 호박, 고구마 등

□ 씨앗 구입
안정적으로 종자를 발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하여 종자를 구입하도록 한다. 신용할 만한 종묘회사, 발아율이 높은 것, 채종 시기가 가능한 한 최근인 것을 구한다.

□ 좋은 모종 고르기
가지, 토마토, 오이, 고추, 피망, 호박 등 열매채소는 판매하는 묘를 구해 쓰는 것이 좋다. 묘의 좋고 나쁨에 따라 그 해의 작황이 80% 정도는 결정된다. 좋은 묘는 아래 잎이 단단히 붙어 있고 맨 위쪽 순잎이 싱싱하며 떡잎이 붙어 있는 것, 잎과 잎 사이 마디 길이가 짧고 키가 작아 탄탄한 것이다. 줄기가 굵고 짜임새가 제대로 갖추어진 모양과 잎이 두텁고 색이 진한 것일수록 좋다. 또 잎이나 줄기, 뿌리근처에 병으로 생긴 반점이 없고 뿌리 흙뭉치가 묘의 크기에 비례하여 균형이 잡혀있고 뿌리가 모종 포트 밑으로 조금 보이는 것이 적당하다.

□ 씨앗 파종과 모종 심는 적기
씨앗 봉지에는 파종시기와 뿌리는 법이 간단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그 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파종에 앞서 썩을 염려가 있는 콩은 빼고 껍질이 단단한 종류나 발아율이 낮은 것은 파종 전날 물에 담가 물을 흡수시키면 싹트기가 빨라지며 발아율도 높아진다.

05. 텃밭채소 규모와 배치는

□ 무엇을 카울까? 쉽게 기를 수 있는 채소 선택이 중요
텃밭에 채소를 기르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즐겨 먹으면서도 쉽게 기를 수 있는 채소를 고르되 각각의 채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가꾸기가 까다롭고 병과 벌레가 많은 것을 선택하면 가꾸는 사람의 의욕이 떨어지고 자칫 텃밭농사를 망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는 가꾸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 쉬운 것 : 상추, 시금치, 쑥갓, 배추, 당근, 무, 토란, 고구마, 감자, 완두, 강낭콩 등
- 보통인 것 : 토마토, 호박, 고추, 가지 등
- 어려운 것 : 오이, 수박, 참외 등

□ 규모와 배치는

5㎡ 크기 즉 한평 반 크기의 소규모 텃밭에는 상추, 쑥갓, 아욱, 근대 등 식물크기가 작고 재배기간 이 짧은 것이 좋고, 20㎡ 내외의 비교적 큰 규모의 텃밭이라면, 옥수수, 완두콩, 고추, 호박, 토란, 감자, 고구마와 같이 재배기간이 길고 식물크기가 큰 채소가 가능한데, 이왕이면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텃밭에는 온실과 달리 아무 때나 심으면 안된다. 계절과 온도에 따라 가꿀 채소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텃밭을 가꾸기 전에 심을 채소의 특성을 알고 어느 시기에 어떤 채소를 심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래에 계절별로 심을 수 있는 작부체계를 몇 가지 예를 들어 놓았다. 실속형은 시간내기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기 좋은 작부체이고, 교육용은 아이들과 함께 자연관찰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채소를 심는 유형이다. 면적이 비교적 넓은 실버형은 주중에도 관리가 가능한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유형으로 우리나라 토종채소 중심으로 조성이 가능하다. 기능성분별 텃밭은 특별한 성인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할 때 참고로 활용하면 좋겠다.

06. 섞어짓기와 돌려짓기

제한된 면적에서 입체적인 공간 활용과 작물들 서로간의 상조작용을 이용한 섞어짓기를 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농사방법이다.

섞어짓기는 두 종류 이상의 작물을 동시에 같은 경지에 재배할 때, 그들 사이에 주부의 관계가 없는 재배방식을 말한다.

1) 서로 좋아하는 작물끼리
2) 햇빛을 좋아하는 작물(대채로 위로 곧게 큼)과 그늘진 곳을 좋아하는 작물
3) 뿌리가 깊은 작물과 얕은 작물
4) 벌레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섞어 심어 병충해 등 여러 가지 생육장해를 극복하는 공생적 관계를 만들어 준다.
5) 섞어짓기나 사이짓기를 하면 해충 발생을 줄여주는 식물
 - 토마토 ➪ 대파, 갓, 당근, 마늘, 부추와 함께 심는다
 - 옥수수 ➪ 오이, 호박, 감자, 고구마랑 심는다.
 - 고추 ➪ 들깨, 파. 양파, 당근과 심는다.
 - 가지 ➪ 콩과 함께 심는다.
 - 양파 ➪ 딸기, 당근과 심는다.
 - 감자 ➪ 강낭콩, 완두콩과 심는다.
 - 보리, 밀 ➪ 완두콩과 심는다.
 - 시금치 ➪ 대파, 마늘과 심는다.
 - 당근파 ➪ 상추, 양파, 완두콩, 로즈메리, 부추, 토마토
6) 해충을 물리치는 혼작, 간작 작물
 - 식물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식물체나 뿌리로부터 분비물을 내어, 나쁜 균이 붙지 못 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강력한 작물의 힘을 빌려 채소의 몸을 지키게 하는 것이 혼작, 또는 간작 작물이다.

① 고추

배추과의 양배추나 배추를 아주 좋아하는 배추흰나비 유충에는 고추를 혼작하면 좋다. 고추를 혼작하면 배추흰나비 유충의 어미인 배추흰나비가 붙지 못 한다. 또 응애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진딧물을 업어 옮기는 개미는 고추씨를 개미구멍에 넣어주면 효과가 있다. 고추는 자연농약이 되므로, 혼작하면 좋다. 단, 간작으로 심을 때는 키가 너무 크지 못 하게 순을 잘라주어야 한다.

② 파

토마토와 가지에 많은 청고병, 입고병, 수박이나 오이류에 많은 만할병, 딸기에 많은 위황병 등에는 파, 부추, 양파, 마늘 등 파 종류를 간작하거나 혼작하면 병이 예방된다. 포기 가깝게 심어 놓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아울러 파류의 간작은 다른 채소 잎에 붙어 가해하는 응애의 발생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낸다.

③ 마늘

마늘을 주 작물로 하여 다른 작물을 심으면 작은 풍뎅이나 여러 가지 해충이 마늘 냄새가 싫어서 붙지 않는다.

④ 결명자

토양 선충은 토마토, 오이, 당근, 우엉, 배추를 좋아해서 뿌리에 혹을 만들어 영양을 가로채곤 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명자와 매리골드, 달리아, 화본과 식물등을 상추, 쑥갓, 부추,

무 등의 채소와 함께 심으면 선충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때 콩류와 가까이는 심지 않는다. 콩류와 사이가 좋은 근류 박테리아도 결명자를 싫어한다.

⑤ 단옥수수와 콩과 작물
단옥수수 뿌리에서는 페니실리움 곰팡이라는 유익한 미생물이 잘 자라고, 뒷 그루로 배추 재배가 잘된다. 또 콩, 팥, 자운영 등의 콩과는 긴날개노린재가 달라붙지 못 한다. 또, 콩과는 뿌리혹박테리아가 아주 좋아해서 공기 중의 질소를 흙 속에 끌어들여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녹비에도 좋다.

⑥ 방울토마토
여름의 인기 식품인 방울토마토는 무농약으로 재배할 수 있는 건강한 우량 작물이다. 이것도 혼식하면 고자리파리나 풍뎅이, 그리고 아스파라거스에 잘 붙는 잎벌레도 예방된다.

⑦ 토란과 호박
호박은 작물에 이로운 익충을 불러 모은다. 긴다리벌, 노랑말벌등 벌이 호박꽃의 꿀을 얻으면서 해충인 각시나방 유충을 포식해준다. 여러 가지 해충을 포식해주는 개구리의 은신처를 호박이 제공한다.

⑧ 허브
유기농업에서는 경험적인 많은 사례가 발굴되고 있다. 매리골드, 로즈매리, 라벤더, 바질, 애플민트 등은 청벌레와 진딧물의 발생을 크게 억제한다.

⑨ 마늘과 상추
마늘과 상추를 같이 심으면 잡초 발생이 억제되고 병해충 발생도 줄어든다.

07. 텃밭채소 가꾸기 실제

1) 밭 만들기
좋은 텃밭을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채소를 키울 땅에 퇴비를 주고 깊이갈이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다음 씨앗이나 모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랑을 만들고 고르기를 한다.

① 퇴비주고 깊이갈기

채소가 잘 자라기 위해 필요한 양분과 수분은, 대부분 뿌리를 통해 땅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뿌리가 잘 뻗어 나가게 하기 위해 땅에 퇴비를 골고루 뿌려주고 삽으로 깊이갈이를 한다.

② 재배상만들기

깊이갈이가 끝나면 이랑 만들기를 한다. 이랑은 뿌리가 잘 자라고 물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 고랑은 20-30cm 폭으로 이랑높이는 20-30cm 정도로 한다.

③ 밭고르기

모종을 옮겨 심거나 씨 뿌릴 장소를 고르게 만든다. 씨를 뿌릴경우에는 수분이 충분한 상태에서 고르고 바로 파종하는 것이 좋다.

2) 씨앗뿌리기

■ 씨뿌리는 방법 3가지

줄뿌림 점뿌림 흩어뿌림

① 줄뿌리기(조파, 條播)는 15-20㎝ 간격으로, 줄과 같은 방향으로 깊이 0.5㎝ 정도의 직선 이랑을 만들어 파종하고 흙을 덮어준다. 종자의 크기가 중간 정도의 경우에 많이이용한다.

② 점파(點播)는 작은 막대기로 씨가 충분히 흙에 묻힐 정도로 구멍을 내고(점을 찍고) 한 구멍에 종자를 1개 내지 2개씩 넣은 후 흙을 덮어준다. 종자의 크기가 큰 경우에 많이 이용하며, 다른 방법에 비해 종자가 많이 들지 않는다.

③ 흩어뿌리기(산파, 散播)는 씨를 흩어뿌리고 얇게 복토하거나, 그대로 두고 신문지나 비닐 또는 유리를 덮어 건조를 막는다. 물을 줄 때 잘못하면 흙이 고르지 않게 되어, 발아가 좋지 못하거나 종자가 한 곳으로 몰려 발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많이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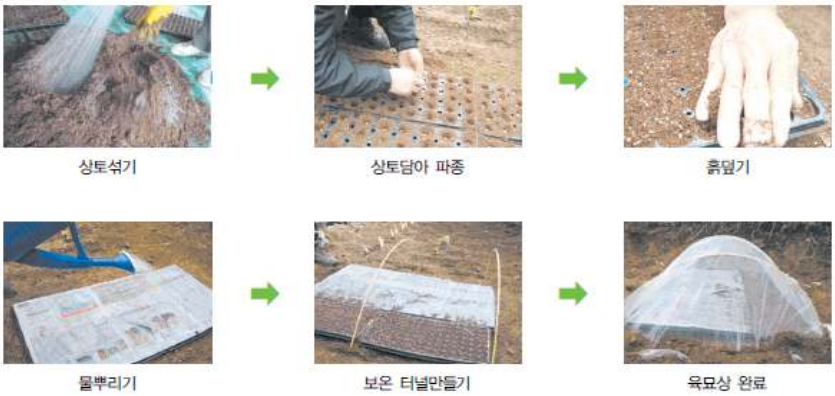
■ 텃밭에서 많이 이용하는 줄뿌림 순서와 요령

① 줄만들기 ② 씨앗뿌리기 ③ 흙덮기

재배상에 적당한 간격의 골을 만들고, 씨앗을 뿌린 다음 흙을 덮어 준다. 종자의 크기가 작고 빛을 좋아하는 상추는 가급적 흙을 얕게 덮어준다. 덮어준 흙의 깊이가 너무 깊으면 싹이 너무 늦게 트거나 트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얕으면 씨가 말라서 죽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간이 육묘상으로 모종 기르기

모종은 구입하여 쓰는 것이 좋지만 직접 기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플러그 트레이를 이용해 간이 육묘상을 만들어 이용하면 된다.



상토섞기 상토담아 파종 흙덮기

물뿌리기 보온 터널만들기 육묘상 완료

3) 농작물 가꾸기

■ 김매기
싹이 나면 우선 주변의 풀을 뽑아준다. 김매기는 특별한 방법 없이 열심히 풀을 뽑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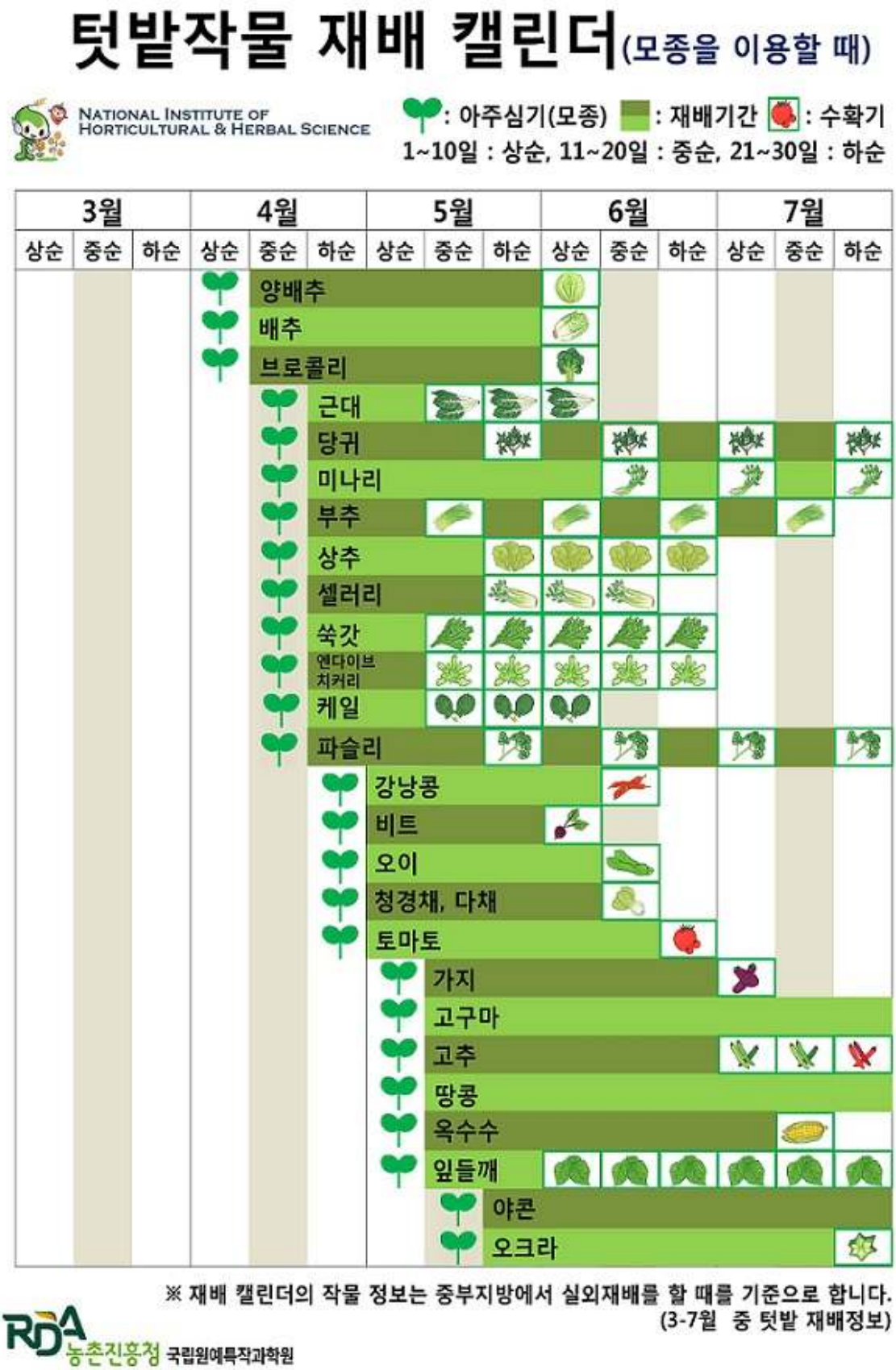
■ 솎아주기
촘촘하게 새싹이 나면 잘 자랄 수 있게 생장에 맞추어 한꺼번에 솎아내지 말고 복잡한 곳부터 몇 번에 걸쳐 솎아준다. 그러면서 사이에 있는 풀도 뽑아준다.

■ 덧거름주기
덧거름을 주는 방법은 작물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포기와 포기사이 이랑과 이랑사이 등 뿌리가 뻗어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거름을 놓아준다. 꽃이피는 종류는 꽃이 필때까지 두 번정도 모종을 옮겨 심은 경우에는 옮겨 심은 후 10일정도 지나 뿌리가 내린 후 덧거름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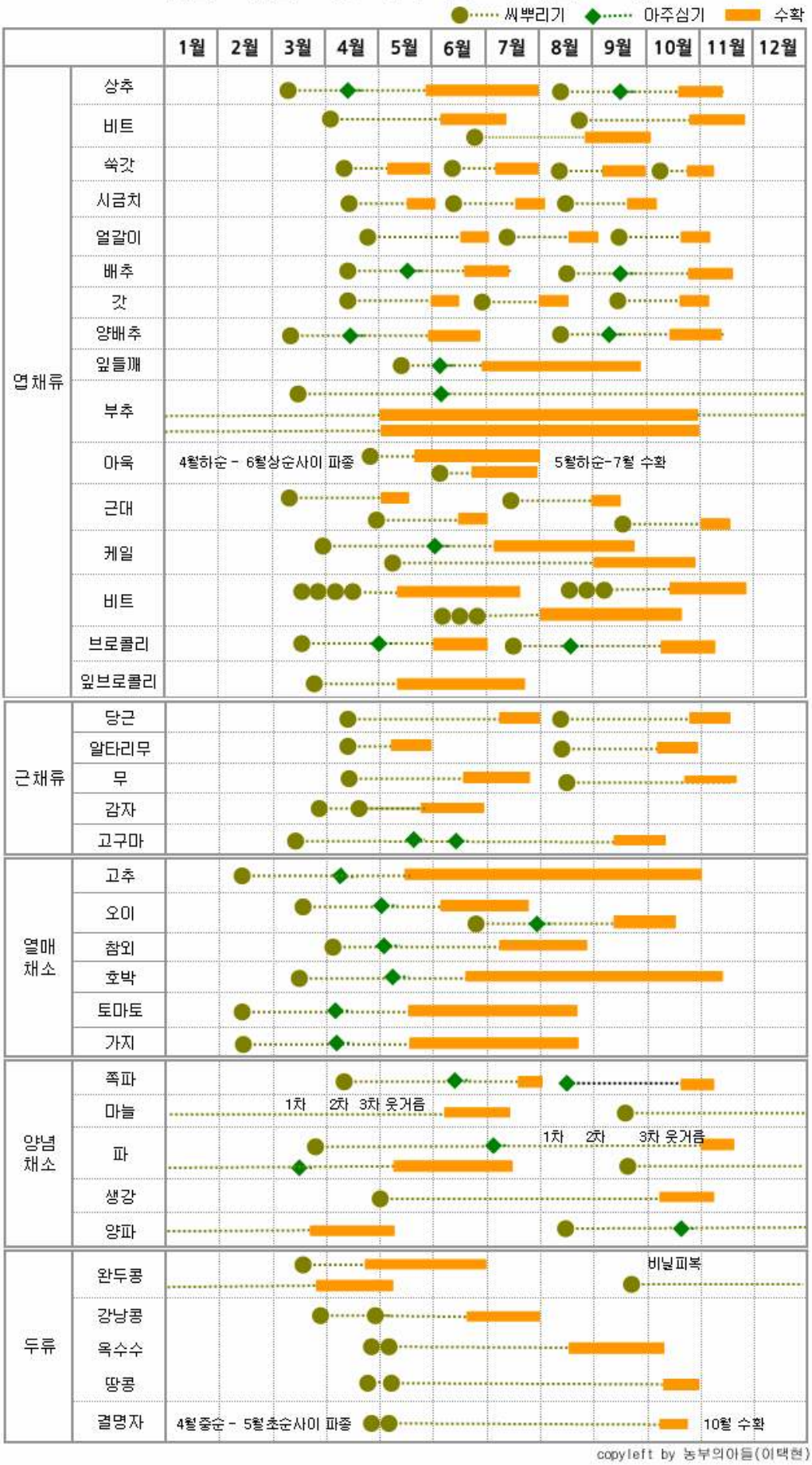
■ 북주기
뿌리부분을 흙으로 높게 덮어주는 경우를 말한다. 북주기를 할 때에는 이랑 양쪽의 통로 흙을 포기 밑으로 모은다음 흙을 끌어당기듯이 높게 만들어 주는 것이 쉽다.

■ 곁순치기
곁순치기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마토는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곁순을 빨리 쳐주는 것이 좋다. 토마토는 옮겨 심은 후 2주일 간격으로 잘 살펴서 곁순을 제거한다. 감자는 꽃이 핌ㄴ 그 꽃을 제거해주면 더욱 튼튼하고 실한 감자가된다.

농작물은 언제, 어떤 작물을 심나요?



텃밭 작물 파종시기 및 재배법 소개



농작물은 어떻게 심고 관리하나요?

■ 복을 싸먹는 상추

학명 : *Lactuca sativa* L.

원산지 : 서아시아, 지중해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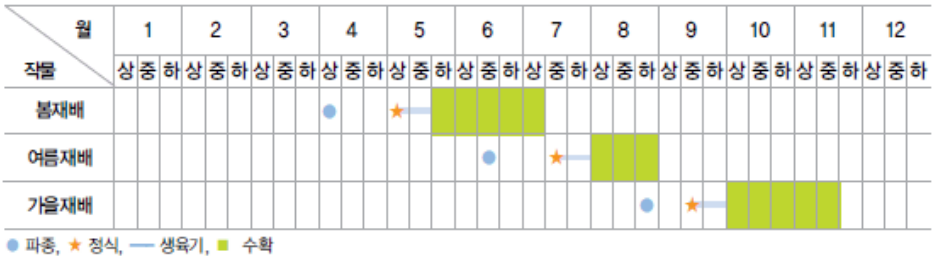
영명 : Lettuce

우리가 즐겨 먹는 상추쌈은 지금은 고기 옆에 따라 붙는 조연 신세지만 원래는 복을 싸 먹는 세시 풍속 으로 우리민족의 독특한 비타민 섭취 방법이고 지혜였다. 직접 키운 싱싱한 상추와 보리밥에 쌈장을 곁들인 쌈은 우리 선조들에겐 건강식단의 기본이었다. 상추에는 육류에 부족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섬유질을 보충해주고 체내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을 하므로 고기 먹을 때 같이 섭취하면 좋다.

1. 잘 자라는 환경조건

- 싹트는데 알맞은 온도는 15~20℃이고, 상추가 잘 자라는 온도는 15~20℃이며 결국에는 10~16℃가 적합하다.
- 상추는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생장이 잘되는 호냉성 채소로서 더위에 약하여 생육기간 중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쓴맛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 쉽다.
- 햇빛의 세기 : 재배에 낮의 길이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않고, 일조량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견딜 수는 있지만 가능한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 토양조건 : 토양에 대한 적응력이 상당히 좋아 통기성과 수분함량이 충분한 토양이라면 어디서든 잘 재배된다.

2. 재배일정



3. 품종선택

잎상추는 포기로 수확하는 '포기상추'와 한 장씩 잎을 따는 '치마상추'로 나누며, 잎 색깔에 따라 녹색을 띠는 '청상추'와 붉은색을 띠는 '적상추'로 나눈다. 여름철에는 청상추가 재배하기

용이한데 특히 '하청' 품종이 발아가 잘된다.

4. 키우는 방법

■ 씨뿌리기 및 모기르기

- 텃밭에 바로 뿌릴 경우는 재배상에 20cm골을 만들어 줄뿌림하고
- 모종을 키울 경우는 육묘상에 6cm 간격으로 파종하거나 128공 플러그묘판 이용한다.
- 파종을 할 경우 상추 종자는 빛을 좋아하므로 씨 뿌린 후 흙을 얇게 덮어주어야 발아율을 높일 수 있다.
- 씨 뿌린 후 1달 정도면 텃밭에 옮겨 심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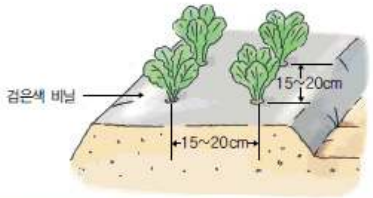
텃밭에 20cm골을 만들어 줄뿌림하고 가볍게 덮어준다.

128공 플러그 묘판에 2-3립씩 파종하고 가볍게 덮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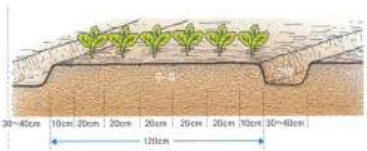
- 모를 키우기가 번거롭거나 작은 면적이면 구태여 힘들여 모를 키우지 말고 종묘상이나 꽃가게에서 구입해 심으면 편리하다.

■ 밭에 아주 옮겨심기

- 상추를 심을 밭은 옮겨심기 전에 밑거름을 넣은 다음 밭을 갈고 땅을 골라 두둑을 만들어 둔다.
- 심는 간격은 잎을 따먹는 상추는 20×15cm1) 가 알맞으며, 좁혀 심고 싶다면 15×15cm나 10×15cm까지 심어도 된다. 그러나 결구상추는 심는 거리를 이보다 넓혀서 30×30cm, 반결구 상추는 25×25cm 간격으로 심는 것이 좋다.



결구(양상추 등) 적축면 청축면



상추의 두둑만들기(두둑의 폭은 120cm, 높이는 30cm, 고랑의 폭은 40cm 정도가 적당하다.

검은 비닐멀칭을 하고 앞이 5매 내외일때 옮긴다

■ 거름주기와 관리

상추는 다른 작물에 비해 생육기간이 짧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영양분을 무시할 수 없는 작물이다. 특히 여름재배에서 영양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대가 빨라지므로 밑거름과 웃거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물은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충분히 주도록 하는데 수확하기 전에 물을 뿌리면 흙이 튀어 잎이 지저분하므로 수확을 한 후에 물을 주도록 한다.

5. 생리장해 및 병충해관리

상추에 주로 발생하는 병해로는 균핵병, 흰가루병, 노균병이 있는데, 텃밭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병해 발생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끔 진딧물이 달려들기도 하지만 포기간격을 다소 넓게 심어 통풍과 햇볕을 잘 받게 하고 지난해 심었 던 장소에 또 심지 않으면 병해충 발생이 없는 상추 생산이 가능하다.

6. 수확하기

잎상추는 정식후 30일경부터 수확이 가능하며, 묘가 활착되어 왕성한 생육을 보이기 시작하면 겉잎부터 차례로 뜯어 수확하는데, 위에 꽃대가 올라와 꽃봉우리가 보일때 쯤이면 먹을 것은 따고 뽑아버린다.

수확기의 상추

큰잎 1장을 포함하여 6장 정도는 남기는 것이 좋다.

상추 추대

7. 이용 부위와 영양적 가치

- 주로 잎으로 쌈이나 겉절이로 이용한다
-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란 성분이 있어 불면증과 신경과민증세에 효과가 있다.
- 피를 맑게 해 주고, 빈혈과 섬유질도 풍부하여 변비에도 좋다.
- 청상추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엽록소, 적상추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들어 있어 항산화작용을 하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Tip. 먹다 남은 상추는 이렇게 보관하세요.

상추를 씻을 때 마지막은 정수된 물(찬물이 좋아요)로 헹군 다음 채반에 밭쳐 적당히 물기가 빠지면 비닐봉투에 넣어 묶어두거나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됩니다.

■ 여름에 맛있는 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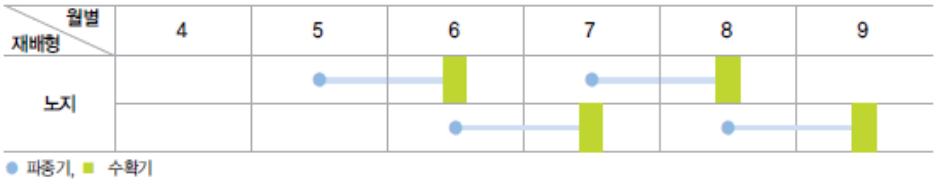
학명: Raphanus sativus L.
원산지 : 지중해 연안, 중국
영명 : Radish

연하고 부드러운 맛의 열무는 원래'어린 무'를 뜻하는'여린 무'에서 유래되었으며, 과거에는 여름 한 철의 특산물이었지만, 지금은 시설재배로 사철 공급되고 있다. 열무로 담근 열무김치는 냉면, 비빔밥, 비빔국수 등 여름음식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없어서는 안될 메뉴로 사랑 받고 있다. 특히 발효 식품인 열무김치는 비타민이 풍부하여 탄수화물인 보리밥에 단백질이 들어간 계란을 곁들인 비빔밥 한그릇이면 완벽한 영양의 조화를 이룬다.

1. 잘 자라는 환경조건

- 싹트는 온도 : 15~30℃이며 35℃이상이면 발아 곤란
- 잘자라는 온도 : 20℃이며 13℃이하로 떨어지거나 고온이 되면 상품성 저하
· 열무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며 추위와 더위에 약함
- 햇빛의 세기 : 빛이 강하고 해 비치는 시기가 길수록 잘자란다.
- 토양조건 : 통기성과 수분함량이 충분한 토양이라면 어디서든 잘 재배됨
- 토양산도 : pH 5.5~6.8로 약산성

2. 재배일정



3. 키우는 방법

■ 씨뿌리기
- 열무는 흩어뿌리거나 골뿌림을 하는데 너무 밀식하면 웃자라서 품질이 낮아지므로 가능하면 솎음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소량을 파종하는 것이 좋다.
- 10㎡(3평)당 40~50㎖가 소요된다.

■ 물주기 및 방충시설 만들기
- 여름철엔 물을 자주 줘야 하므로 점적호스나 분수호스를 설치하면 편리하지만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물조리개 등으로 건조하지 않도록 아침저녁으로 고루 뿌려주면 된다.

4. 수확하기

- 씨 뿌린후 싹이 올라온 상태를 봐서 지나치게 밀식되었으면 여 름철에는 10일, 봄에는 2주일 경에 솎아주기를 한다
- 수확기를 넘기면 이른봄 재배시 추대가 문제되며, 여름철에는 연부병 등 각종 병해로 인한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적기에 수확 한다.
- 봄에는 40일, 한여름에는 25일 전후로 수확이 가능하다.

5. 이용 부위와 영양적 가치

어린잎을 이용하며 무 잎 에는 비타민 A, C 및 필수 무기질이 알맞게 들어 있어 혈액 산성화를 방지하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포만감을 주는 채소로서 보리밥과 궁합이 맞다.

Tip. 맛있는 열무 고르기와 보관 : 맛있는 열무는 키가 작고 백리 부분이 날씬하며 잔털이 적다. 잎이 너무 가늘면 빨리 무르므로 도톰한 것이 좋다. 또 열무 고유의 짙은 색을 띠는 것이 상품성이 좋다. 생장 후 7장 정도의 잎이 난 열무의 맛이 가장 좋다. 잎이 금새 시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것이 좋고, 보관할 경우엔 신문지나 주방 타월로 감싸 냉장 보관한다.

■ 근대

학명: *Beta vulgaris* var. *cicla*

원산지 : 유럽 남부

영명 : Leaf beet

1. 잘 자라는 환경조건

- 생육적온 : 15~18℃ (주간 23~25℃, 야간 최저 5~6℃)

근대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나 한여름에도 비교적 잘 자라는 작물로 봄부터 가을까지 재배가 모두 가능하다. 4월에 심으면 6월까지 수확할 수 있고 8월말 또는 9월 초에 심으면 가을에 수확하다가 월동을 하고 그 이듬해 봄에 수확할 수 있는 두해살이 식물이다.

2. 재배일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작형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봄 파종형							●			★															●			★									

● 씨뿌리기, ★ 옷거름, ■ 수확

3. 키우는 방법

■ 밭 만들기와 씨뿌리기

① 폭 1~1.2m정도의 이랑으로 준비한다. (토심 깊고, 물빠짐이 좋은 토양)

② 파종 20일전에 10㎡당 퇴비 10kg, 고토석회 1~1.5Kg을 주고 밭을 간다. 파종 1주일전에 10㎡ 당 질소 140g, 인산 80g, 칼리 100g의 비료를 뿌 려준다.

③ 파종시에 2~3cm 간격으로 줄파종 한다.

■ 물 주기

① 근대가 본엽 3~4매로 10cm 정도로 자라면 솎아 내기를 하여 포기나비 12~13cm가 되도록 한다.

② 물관리는 약간 습한 것이 좋으며, 한번에 충분히 물을 준다

4. 품종선택

- 소엽종 : 옛날부터 재배하여 오던 재래종으로 생육기간 짧고, 잎은 농록색이며 긴 계란형이고 잎의 폭은 10cm 내외에 잎자루를 포함해 길이는 30cm로 잎자루의 색깔은 담록색이고 뿌리는 담홍색이 다. 잎수는 비교적 많고 생육이 빠르며 시금치의 재배가 곤란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쉽게 재배되는 채소이다.
- 서양종 백경근대 : 잎은 농록색에 주름이 있으며 길이는 약간 짧지만 잎이 넓다. 잎자루는 굵고 색깔 은 순백색이며 초세가 강한 만생종이다.
- 스위드 챠드 : 잎자루가 넓고 비후하며 백색종의 근대이다. 초장이 높고 잎이 넓고 크며 농록색인 중 만생로 엽육이 두껍고 잎의 표면은 약간 요철이 있다.
- 루비레드(적근대) : 루비레드는 사탕무와 비트 사이의 유사한 품종으로 어린잎을 뜯어내도 계속 잎이 나와 시설하우스의 경우 일년 내내 파종,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다.
- 기타 품종 : 잎자루의 색깔이 청색인 청경근대와 황색인 황경근대 등이 있다.

다양한 근대

루비레드

5. 수확하기

잎크기가 25~30cm 정도 자라면 수확한다.
여름에는 5~7일 간격, 겨울에는 7~10일 간격으로 수확이 가능하다.

6. 영양적 가치

카로틴, 칼슘, 철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홍록색채소로 뿌리의 베타인 성분은 이뇨제 효능이 있고, 씨앗은 발한제로 몸을 차게 하는데 쓰인다. 근대는 무기질과 비타민의 함량이 비교적 많다. 단백질의 함량은 적지만 구성 아미노산이 라이신·페닐알라닌·로이신 등 필수아미노산이 많다. 또한 비타민 A가 많아 밤눈이 좋지 않고 피부가 거친 사람과 성장 발육이 뒤늦어지는 어린이에게는 매 우 좋은 채소이다.

■ 브로콜리

1. 재배일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작물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브로콜리							●	—	—	★	—	—	—	—	—	—	—	□												□								
																			●	—	—	★	—	—	—	—	—	—								

● 씨뿌리기, ★ 아주심기, □ 수확 (중부지역 기준)

2. 품종의 선택

브로콜리는 다른 배추과 작물과 유사하게, 최적 생육온도가 18~20℃로, 비교적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이다. 중부지방 기준으로 봄재배의 경우 장마기, 가을재배의 경우 생육기간의 확보 문제 등으로 극조생 품종(같은 식물 중에서 특별히 일찍 성숙되는 종류)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중부지방 봄재배의 경우 3월 초 온상에 파종 후, 육묘하여 4월초에 정식하고 6월 말경에 수확하는 작형이다. 생육 후기의 덥고 습한 기후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가을재배는 고온기인 7월에 파종하여 가을에 꽃봉오리를 수확하는 작형으로 생육초기의 고온에 견딜 수 있고, 생육 후기의 저온과 낮은 일조 조건을 피하기 위해 생육기간이 짧은 품종을 선택한다.

3. 파종, 육묘 및 정식

- 파종 : 봄/가을 작기에 따라 적합한 시판종자를 구입하여, 밭흙과 거름을 1:1로 섞어 채운 육묘상자에 3cm 간격으로, 2립씩 파종한 뒤 물을 충분히 준다.
- 육묘 : 봄재배의 경우 파종 후 온도 관리에 신경을 써, 최저온도를 10℃ 이상으로 유지한다. 특히 발아기에는 15℃ 이상을 유지해주고, 발아 후 본엽의 성장 정도를 보아, 약하게 자라난 묘는 솎아낸다.
- 정식 : 묘의 본엽이 4~5매 정도 자랐을 때, 밭으로 옮겨 심는다. 이때 묘의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뿌리에 붙은 흙은 최대한 유지한다. 이랑사이는 80cm, 포기사이는 30cm가 적당하다. 정식 후 충분히 물주기 한다.

4. 재배

육묘 후 적기에 정식하여 재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양호한 품질의 꽃봉오리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지력유지와 균형시비가 필요하다. 특히 조생종의 경우 추가로 밑거름을 충분히 넣어 생육기에 충분한 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6. 수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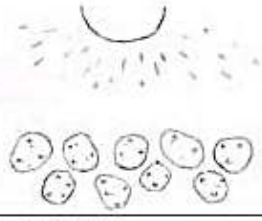
- 꽃봉오리 크기가 10cm 이상(230g 이상)인 것을 골라, 꽃봉오리의 입자가 퍼져 성겨지기 전에 수확한다. 수확시 꽃봉오리 밑의 줄기를 15cm정도 남기고, 잎도 2~3장 함께 붙여 수확한다. 이슬이나 비로 인한 물기가 없는, 선선한 날씨를 택해 수확하고, 바로 저온 보관하여야 저장성이 높아진다.

• 7. 영양적 가치

- 이용 부위 : 꽃봉오리
- 브로콜리는 미 타임지 선정 10대 채소에 선정된,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채소임과 동시에, 글루코시놀레이트류의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항균/항암, 면역증강 등의 보건 기능적 측면으로도 대단히 우수한 채소이다. 각종 무기염류와 여러 아미노산, 비타민 역시 풍부한 브로콜리는 현대인의 식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채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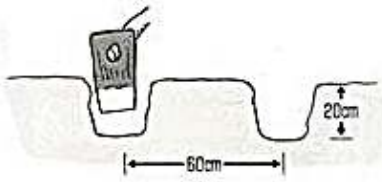
■ 감자 기르기

장마비가 잠깐 그친 사이, 땀을 흘려가며 캐낸 감자는 크기는 모두 제각각이지만 상당히 많은 양이다. 잘 보관해두면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고 쓰임새도 상당히 많은 중요한 작물이다.



① 씨감자 심기
㉠ 씨감자는 종묘상에서 구입하거나, 작년에 수확한 것을 이용한다. 심기 전에 햇볕을 쪼여 표면에 약간 녹색이 돌도록 한다.

㉡ 씨감자는 크기에 따라 2등분 또는 3등분한다.



㉢ 이랑 사이가 60cm 정도 되도록 깊게 고랑을 판다. 고랑을 깊게 만들면 발아가 늦어져 서리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30cm 간격으로 자른 씨감자를 놓는다. 씨감자 사이에 거름을 한 주먹씩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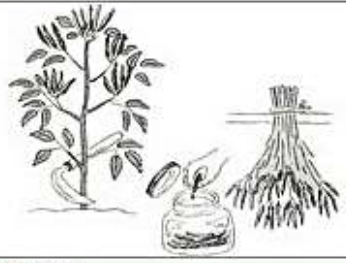
㉤ 씨감자를 묻고 괭이로 한 번 더 흙을 끌어올려 덮어준다.

② 첫 번째 북주기와 추비
발아가 끝나면 풀을 뽑으면서 흙을 끌어올려준다. 그 다음 거름을 놓아 추비한다
③ 두 번째 북주기와 추비
감자잎이 무성해지기 전에 한 번 더 흙을끌어올리고 추비를 한다. 이랑이 낮으면 감자가 흙 밖으로 나오게 된다.

④ 수확
수확은 6월 하순경부터 할 수 있으므로 날씨가 좋은 날을 골라서 한다. 땅 깊숙이 삽을 넣어 뒤집은 다음 감자를 골라내 햇볕에서 흙을 말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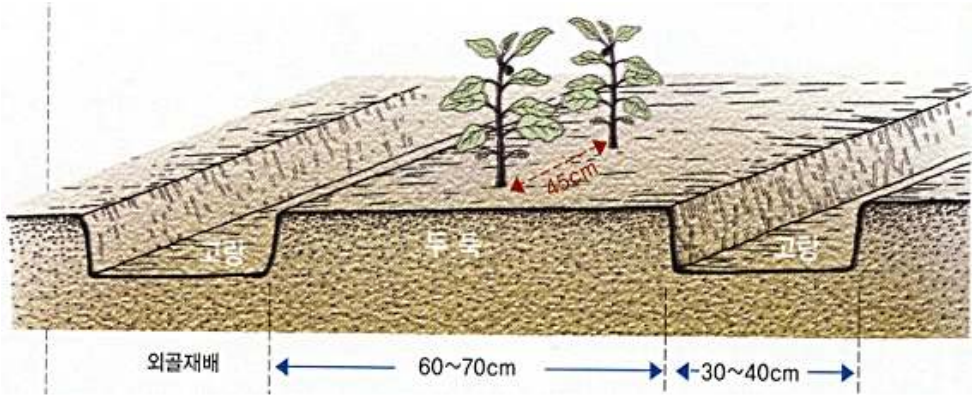
■ 고추 기르기

녹색 열매가 빨갛게 익었다. 밭에 씨를 뿌려서 많이 키울 수도 있지만, 모종을 구입하여 손쉽게 몇 포기 키워두면 요리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곡류의 보존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① 모종 구입 필요한 만큼 모종을 구입한다. 그다지 많지 않아도 열매는 충분할 것이다.	② 모종 심기 포기 사이가 50cm 정도 되도록 구멍을 파고, 물을 빨아들인 모종을 심는다. 피망이랑의 구석을 이용해도 좋다.	③ 첫 번째 풀뽑기와 추비 심고 나서 10일 정도 지난 다음, 주변의 풀을 뽑고 포기 사이에 거름을 놓아준다.
		
④ 두 번째 풀뽑기와 추비, 멀칭 장마 전에 한 번 더 풀을 뽑고 추비를 한 다음 짚 멀칭을 해준다.	⑤ 지주 세우기 포기가 넘어지지 않게, 한 포기에 하나씩 지주를 세워준다.	⑥ 수확 열매가 빨갛게 익으면 가지째 잘라내어 단으로 묶어 걸어둔다. 맑은 날 열매만 따내어 잘 말려서 보관한다.

○ 고추 심는 시기

○ 고추 모종 심는 방법



■ 배추 기르기

겨울 채소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간해서는 결구(結球)되지 않으므로, 반만 결구되어도 자신에게 80점을 줄 정도로 키우기 어려운 채소이다. 결구되지 않은 배추는 봄이 되면 배추꽃으로 봄의 향기를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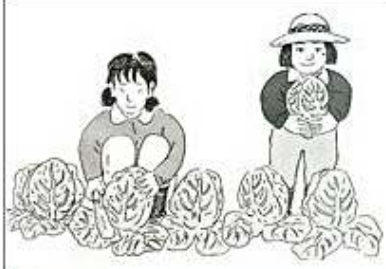
① 씨뿌리기
㉠ 포트에 퇴비와 밭흙을 반씩 섞어 넣고 2~3알의 씨앗을 뿌린다.

㉡ 마르지 않을 정도로 물을 준다. 귀뚜라미에 의한 피해가 걱정되면 지면에서 떨어진 곳에 놓아둔다.

② 모종 옮겨심기
9월 10일 이후 모종과 밭의 상태(습한 정도)를 보고 모종을 옮겨심는다. 이랑 사이가 60cm 정도 되도록 줄을 잡고, 50cm 간격으로 구멍을 판다. 모종은 포트째 물에 담가 물을 흡수시킨 후 포트에서 빼낸다. 흙이 묻어 있는 상태로 한 포기씩 나누어 구멍에 심는다. 흙이 건조할 때에는 구멍에 물을 가득 부어준 다음에 심는다. 깊이 심었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흙을 덮고 잘 눌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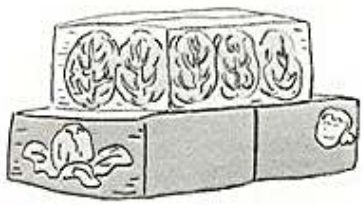
* 밭에 직접 뿌릴 경우
묘상이라기보다 솎아내어 옮겨심는 식으로 생각한다. 폭 80cm의 베드(평면으로해도 좋다)를 만든다. 60cm 간격으로 두줄의 고랑을 만들고, 씨를 1cm 간격으로 겹치지 않게 뿌린다. 가볍게 흙을 덮고 퇴비를 뿌려준 후 괭이의 등 부분으로 눌러준다. 귀뚜라미 등의 해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한랭사를 덮어두는 게 좋다. 어느정도 자라면 삽의 등을 이용해 40~50cm에 한 포기만 남기고 솎아준다. 솎아낸 것은 별도로 만들어놓은 장소에 옮겨심는다

③ 김매기와 추비
옮겨심고 10일 정도 지났을 때, 포기 사이에 퇴비와 비료를 놓아준다. 아직 풀은 많이 자라지 않았으나, 풀이 자라는 것을 막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김을 매준다. 모종의 한쪽(A)을 괭이로 가볍게 긁어준다. 10일 정도 지나면 다시 다른 한쪽을 긁어주고 추비한다.



④ 수확
11월이 되면 완전히 결구된 것부터 수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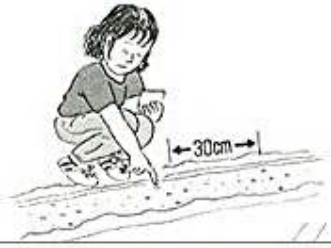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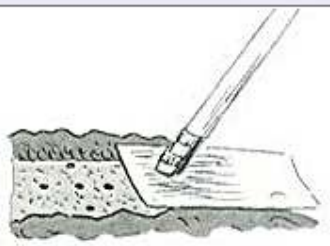
⑤ 보온
12월이 되면 결구된 배추가 서리를 맞지 않도록, 겉잎을 둘러싸듯이 모아 끈으로 묶어준다.



⑥ 보관
수확해서 한곳에 나란히 세운 다음 그 위를 짚다발로 덮어 찬 바람을 막아주거나, 두꺼운 종이상자 등에 넣어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두면 확실하게 보관할 수 있다.

■ 무 기르기

아직도 무더운 8월말, 겨울의 풍성한 식탁을 생각하면서 무의 씨앗을 뿌렸다. 무더운 시기이기 때문에 발아가 무척 빠르다. 잎채소가 흔치 않은 여름에, 솎아낸 무잎은 조금 매콤하면서도 푸른 것이 아주 맛있다. 서리가 내려 맛이 더욱 좋아진 무를 먹으면 겨울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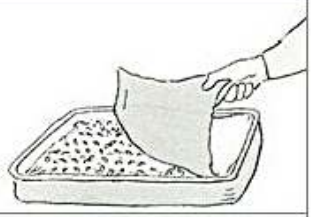
<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① 씨뿌리기
㉠ 이랑 사이가 60cm 정도 되도록 괭이로 고랑을 만든다.</td><td>㉡ 고랑에 씨를 다섯 알씩 30cm 간격으로 놓는다.</td><td>㉢ 흙을 가볍게 덮고, 괭이 등으로 눌러준다.</td></tr>
<tr><td> </td><td> </td><td></td></tr>
<tr><td>② 김매기와 추비
9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아래 ㉠에서 ㉣까지의 작업을 2~3회 해준다. 해충이 많이 보이면 나뭇재를 조금 뿌려준다.
㉠ 발아가 끝나면 한쪽 이랑의 흙을 파올려 북주기를 한다.
㉡ 북주기가 끝나면 거름을 조금 뿌려 준다.</td><td>㉢ 1주일 정도 지나면 다른 쪽도 북주기 해준다.</td><td>㉣ 거름으로 추비한다.</td></tr>
<tr><td> </td><td> </td><td> </td></tr>
<tr><td>③ 솎아주기
김매기와 추비를 하면서 적당한 간격으로솎아준다. 솎아낸 것으로는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다.</td><td>㉠ 본잎이 자라면 복잡한 곳부터 차례대로 솎아준다.
㉡ 최종적으로는 10월 중순경까지 한 포기만 남도록 한다.</td><td>④ 수확
무는 11월 상순까지 계속 자라므로 굵은 것부터 수확한다.</td></tr>
<tr><td> </td><td></td><td></td></tr>
<tr><td>⑤ 서리 대책 세우기
땅 위로 올라온 무의 목 부분을 흙으로 완전히 덮어준다.</td><td></td><td></td></tr>
</table>

■ 토마토 기르기

여름의 밭은 풀과의 싸움터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한 개 따서 그대로 베어물었다. 태양의 따뜻함과 함께 그 맛도 느껴지는 것 같다. 어린시절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① 씨뿌리기
모종상자에 퇴비와 밭흙을 반씩 넣어 잘 섞어준다. 2~3cm 간격으로 고랑을 만들어 씨를 뿌린다. 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을 덮고 손바닥으로 눌러준다.

신문지를 한 장 덮고 그 위에 물을 뿌려준다.



② 모종 키우기
모종상자를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곳에 두고, 저녁 무렵에는 집안으로 옮겨주는 등 추위를 확실하게 막아준다. 물은 하루에 한번, 흙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준다. 발아하기 시작하면(5~10일) 신문지를 걷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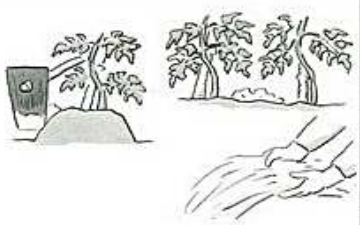
③ 포트에 옮겨심기
발아가 끝나고 본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옮겨심는다. 포트에 밭흙과 퇴비를 반씩 섞어 넣고, 물을 흠뻑 뿌려둔다. 모종 밑으로 손가락을 넣고 2~3포기씩 뿌리 부분을 흔들어 뽑아낸다. 포트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모종을 한 포기씩 심어준다. 보온에 유의한다.

④ 밭에 옮겨심기
서리 걱정이 사라지는 5월 상순에 밭에 옮겨심는다. 폭 90cm, 높이 20~30cm의 높은 이랑을 만든다. 토마토는 다 자라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튼튼한 십자매기 지주를 세우기 위해 이랑을 두 줄로 만들어주는게 좋다.

포트째 물에 담가 물을 충분히 흡수하면 포트를 빼내고, 포기 사이가 30cm쯤 되도록 한 포기씩 심어준다. 땅이 말라 있을 때에는 심을 구멍에 물을 부어두면, 심은 후에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

⑤ 첫 번째 북주기와 추비
5월 하순에는 북주기를 하고 포기 사이에 거름을 놓아 추비한다.

⑥ 지주 세우기
모종이 큰 경우에는 곧바로 지주를 세우고 끈으로 묶어 고정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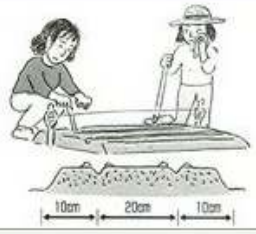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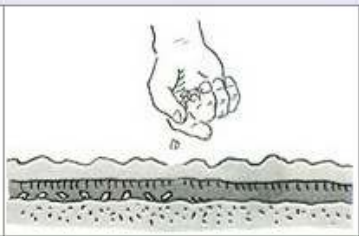
⑦ 곁순치기
성장에 맞추어 줄기를 지주에 고정시켜주면서 곁순이 나오면 따준다. 한 포기에 지주 하나씩을 세워주면 통풍도 잘되고 윗부분도 빨리 자라 수확하기 쉽다. 곁순치기와 고정은 8월말까지, 1~2주일에 한 번 정도 해준다.

⑧ 두 번째 북주기와 추비, 멀칭
6월 하순, 한 번 더 흙을 끌어올려주고 거름을 조금 놓아 추비한 다음 짚으로 멀칭한다. 멀칭은 풀이 자라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니까 틈이 생기지 않게 잘 덮어준다.

⑨ 수확
빨갛게 익은 것부터 수확한다.
⑩ 수확 후 뒷정리
10월 하순, 줄기와 지주를 분리해서 뽑아낸다.

■ 쑥갓 기르기

향기가 독특하고 벌레 걱정도 없다. 그러나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 식탁에 올리기는 어렵다. 초여름에 많이 수확할 수 있고, 한여름에는 예쁜 꽃이 피어 마음을 한껏 즐겁게 해준다.

<table>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① 씨뿌리기
㉠ 폭 40cm의 베드를 만든다.</td>
<td>㉡ 20cm 간격으로 고랑을 만들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겹치지 않게 씨를 뿌린다.</td>
<td>㉢ 주변의 흙을 가볍게 덮은 다음, 거름이나 나뭇재를 뿌리고 괭이의 등으로 가볍게 눌러준다.</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② 솎아주기
본잎이 5cm 정도로 자라면 복잡한 곳은 뿌리째 뽑아내어 간격을 넓혀 준다. 솎아낸 것은 물론 먹을 수 있다.</td>
<td>③ 수확
솎아주기가 끝나면 남아 있는 포기의 잎 위에서부터 5cm 정도 되는 곳을 수확한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싹이 나오니까 그것을 수확하면 된다.</td>
<td>④ 보온대책 세우기
가을에 파종하면 서리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11월 이후에는 한랭사를 덮어주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td>
</tr>
</table>

■ 우엉 기르기

키우기는 쉽지만 수확할 때는 약간의 각오를 해야 한다. 우엉을 캐면서 '이렇게 단단한 땅 속에 뿌리를 뻗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문이 생길 것이다. 향기가 좋은 채소이다.

<table>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① 씨뿌리기
㉠ 높이 5cm, 폭 40cm 정도의 베드를 만든다.
㉡ 10cm 간격이 되도록 세 줄로 씨를 뿌린다.</td>
<td>㉢ 씨를 뿌린 후 잘 눌러준다.</td>
<td>② 풀뽑기
5월 중순경 풀이 나기 시작하면 풀을 뽑고 흙을 긁어준다.
③ 추비
거름을 조금 뿌려준다. 풀뽑기와 추비 후에는 잎이 무성해지는데. 여름에는 특별히 손볼 필요가 없다.</td>
</tr>
<tr>
<td> </td>
<td></td>
<td></td>
</tr>
<tr>
<td>④ 수확
9월 하순부터 수확하기 시작한다. 우엉을 바로 뽑아낼 수는 없고, 1m 정도 땅을 파서 수확한다.</td>
<td></td>
<td></td>
</tr>
</table>

■ 파 기르기

가을도 깊어 서리가 내릴 때쯤이 파의 계절이다. 씨를 뿌리고 1년 이상 키워, 겨우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의 맛이란 특별하다. 파는 겨울 식탁에서 빠뜨릴 수 없는 채소이다.

① 씨뿌리기
㉠ 폭 40cm 정도의 베드를 만든다. 폭이 너무 넓으면 풀뽑기가 어렵다. 베드의 길이는 씨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1m 정도가 좋다. 베드에 2~3cm 폭의 고랑을 그어 겹치지 않게 씨를 심는다.

㉡ 가볍게 흙을 덮고 거름과 나뭇재를 뿌린 다음, 손 바닥으로 눌러 준다.

② 모종 키우기
가을, 풀이 너무 많아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 같으면 풀을 뽑아준다. 바람이 강한 곳은 보온을 위해 서쪽과 북쪽에 판자를 세워주는 게 좋다.

③ 모종 옮겨심기
㉠ 이듬해 4월이 되면 심을 밭을 준비한다. 폭 90cm, 깊이 15cm 정도의 이랑을 만든다. 한 번으로는 얕으므로 두 번 정도 파낸다.

㉡ 삽을 뿌리 밑으로 넣고 흙을 흔들어 모종을 한 포기씩 나눈다. 흙은 모두 털어내도 된다.

㉢ 모종을 이랑에 기대 세우듯이 2~3cm 간격으로 놓는다.

㉣ 뿌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흙을 덮어준다. 너무 깊게 묻지 않도록 한다.

㉤ 뿌리 부근에 낙엽이나 짚 등을 덮어준다.

④ 첫 번째 풀뽑기와 추비
5월 중순부터 6월까지는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 전에 가볍게 풀을 긁어준다. 이랑에 흙이 들어가도 상관없다. 풀을 뽑아준 다음에는 거름을 놓아 추비한다.

⑤ 두 번째 풀뽑기와 추비
7~8월에는 풀도 빨리 자라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풀을 뽑아준다. 풀을 뽑은 후에는 흙을 가볍게 긁어주고, 흙을 모아준 다음에는 거름을 놓아 추비한다.

⑥ 북주기
9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흙을 돋우어준다. 특히 태풍이 오기 전에 녹색 부분까지 흙을 모아준다. 잡초를 막고 보온해주는 의미가 있으며, 10월에 한 번 더 해준다.

⑦ 수확
10월말부터 수확을 시작한다. 삽으로 파올리듯이 흙을 흔들어준 후 뽑아낸다.

⑧ 종자 받기
3월이 되면 꽃대가 나온다. 대개 그 전에 수확하지만, 종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크고 굵은 것을 한 두 포기 남겨둔다. 꽃이 피고 검은 종자가 생기면 파 꽃대만을 잘라내어, 그늘에서 말려 종자를 떨어낸다. 종자는 필름통 등에 넣어 보관한다.

■ 시금치 기르기

시금치를 많이 먹으면 뽀빠이처럼 힘이 세진다고 해서 한번 키워보기로 하였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흙 선택이 까다로운 채소인 것 같다. 좋은 흙에서 훌륭한 채소가 자란다는 걸 증명해 주는 작물이다.

① 씨뿌리기
㉠ 보통때보다 퇴비를 많이 넣고 나뭇재를 뿌린 뒤 갈아준다.

㉡ 폭 40cm 정도의 베드를 만들고 15cm 간격의 줄을 긋는다.

㉢ 그 고랑에 1cm 간격으로 씨를 심는다.

㉣ 주변의 흙을 덮고 거름과 나뭇재를 조금 뿌려준 후 괭이의 등 부분으로 살짝 눌러준다.

② 풀뽑기와 추비
발아가 끝나면 주변의 풀을 뽑고 나뭇재나 거름을 다시 뿌려준다.

③ 수확
5cm 정도 자라면 복잡한 곳을 솎아내면서 수확한다. 서리가 내리면 단맛이 더 짙어진다. 가을에 파종한 경우에도 봄이 되면 꽃대가 빨리 나오니까, 일찍 파종한 것은 봄이 오기 전에 수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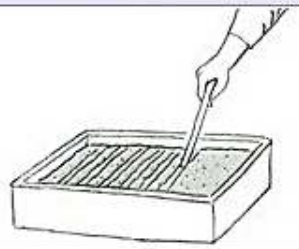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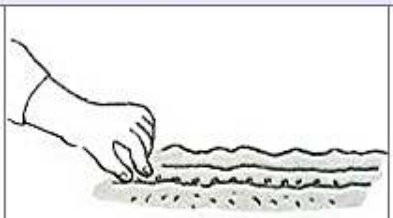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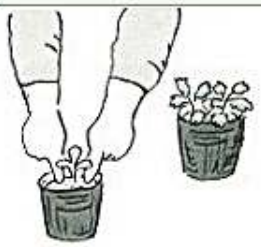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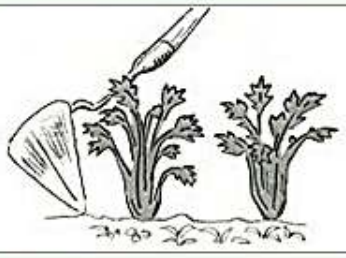
④ 월동 준비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고 강한 곳이라면 한랭사를 덮어준다.
㉠ 베드의 폭에 맞추어 활죽을 꽂고, 그 위에 한랭사를 빈틈없이 덮어준다.

㉡ 한랭사의 끝에 흙을 얹고 발로 밟아 날아가지 않게 한다.

⑤ 한랭사 벗기기
3월 하순이 되면 한랭사를 벗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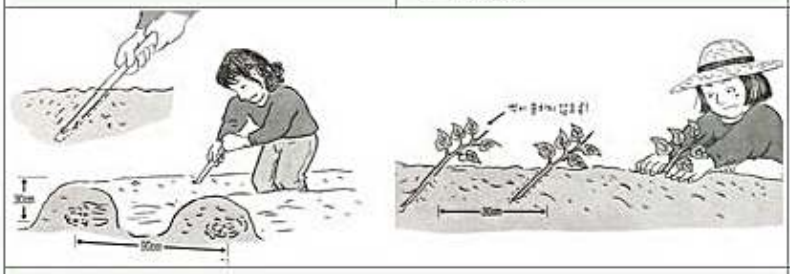
■ 셀러리 기르기

뿌리까지 온통 녹색인 셀러리가 자라났다. 시중에서 파는 셀러리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셀러리의 진한 향기가 싫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신선한 느낌을 갖게 된다. 중국 요리의 중요한 재료 중 하나이다.

<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① 씨뿌리기
㉠ 모종상자에 밭흙과 퇴비를 반씩 섞어 넣고 3cm 간격으로 고랑을 만든다.</td><td>㉡ 고랑에 1cm 간격으로 씨를 심고 주변의 흙을 가볍게 덮어준다.</td><td>㉢ 물을 뿌리고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곳에 둔다.</td></tr>
<tr><td> </td><td> </td><td> </td></tr>
<tr><td>② 포트에 옮겨심기
떡잎이 완전해지면 포트에 옮겨심는다.</td><td>㉠ 포트에 밭흙과 퇴비를 반씩 섞어 넣는다.</td><td>㉡ 모종 밑으로 손가락을 넣고 흙을 흔들어 한 포기씩 뽑아낸다.</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포트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 포트 하나에 세 포기씩 심어준다.</td><td>③ 밭에 옮겨심기
본잎이 4~5장 나오고, 모종이 확실해지면 밭에 옮겨심는다.
㉠ 포기 사이가 30cm 정도 되도록 구멍을 판다.
㉡ 포트째 물에 담가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포트를 빼낸다.
㉢ 흙이 붙어 있는 채로 한 포기씩 분리해서 구멍에 심어준다.</td><td>④ 첫 번째 풀뽑기와 추비
옮겨심고 10일~2주일 지나면 주변의 흙을 긁어주고 포기 사이에 거름을 한 주먹씩 놓아준다.
⑤ 두 번째 이후의 풀뽑기와 추비
아직 크게 자라지 않았으므로, 풀에 치이지 않게 주변의 풀을 뽑아준다. 또 크게 자라도록 추비한다.</td></tr>
<tr><td> </td><td></td><td></td></tr>
<tr><td>⑥ 수확
포기째 잘라내도 좋고, 잎을 떼어내서 써도 좋다. 잎이 자꾸 자라기 때문에 2~3포기 남겨두면 겨울까지 먹을 수 있다.</td><td></td><td></td></tr>
</table>

■ 고구마 기르기

무성하게 자란 잎이 어느새 밭을 덮었다. 땅 속의 고구마가 어떤 상태일지 궁금해하며 수확하기 시작했다. 고구마의 예쁜색깔, 그리고 기대 이상의 크기에 나도 모르게 환호성이 터져나온다.

<table>
<tr><td> </td><td> </td><td></td></tr>
<tr><td>① 모종 준비
구입한 모종은 뿌리가 나오도록 물에 담가둔다.</td><td>② 이랑 만들기
이랑 사이가 90cm 정도 되도록 모종 심을 장소를 정한다. 중심에 짚을 놓고, 흙을 쌓아올려 높은이랑을 만든다.</td><td></td></tr>
<tr><td colspan="2">  </td><td> </td></tr>
<tr><td colspan="2">③ 모종 심기
비가 그친 후나 흙이 젖어 있는 날을 택해서 심는다. 포기 사이는 약 30cm 정도 되도록, 막대기로 비스듬히 구멍을 뚫어 모종을 꽂아주고, 손으로 잘 눌러준다.</td><td>④ 첫 번째 풀뽑기와 북주기, 추비
6월 중순이나 하순경, 풀이 많이 자라기 전에 뽑아준다. 비 때문에 이랑이 무너졌을 때에는 흙을 끌어올려 이랑을 고쳐준다. 포기 사이에 거름을 놓아준다.</td></tr>
<tr><td> </td><td> </td><td></td></tr>
<tr><td>⑤ 두 번째 풀뽑기와 북주기, 추비
덩굴이 무성해지기 전에, 한 번 더 풀을 뽑으면서 흙을 끌어올려주고 포기 사이에 거름을 놓는다. 8월에 큰 풀이 많이 보이면 뽑아준다.</td><td>⑥ 수확
10월이 되면 캐기 시작한다.
먼저 덩굴을 잘라내고 삽을 이용해 파낸다.</td><td></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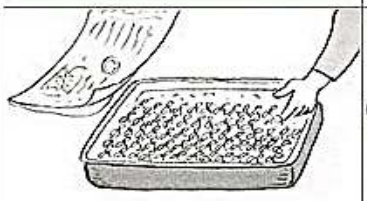
■ 가지 기르기

가지색이란 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었던가? 먹기 좋을 만큼 자란 가지는 가지색으로 빛나고, 그 다음에는 자주색으로 바뀐다. 여름 채소 중 으뜸, 질릴 정도로 먹고 나면 여름도 끝나간다.

① 씨뿌리기
㉠ 모종상자에 밭흙과 퇴비를 반씩 섞어넣는다.

㉡ 2~3cm 간격으로 고랑을 긋고 1cm 간격으로 씨를 심는다.

㉢ 주변의 흙을 덮어 손 바닥으로 가볍게눌러준다.
㉣ 신문지를 한 장 덮은 다음 그 위에서 물을 뿌려준다.



② 모종 키우기
모종상자는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곳에 두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지켜준다(집안에 두거나 종이상자, 헌 담요 등을 덮어준다). 발아하기 시작하면 신문지를 걷어낸다.

③ 포트에 옮겨심기
발아가 끝나고 본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포트에 옮겨심는다.
㉠ 포트에 밭흙과 퇴비를 반씩 섞어 넣는다.
㉡ 모종 밑에 손가락을 넣고 흙을 흔들어 한 포기씩 뽑아낸다.
㉢ 뽑아낸 모종을 포트에 한 포기씩 심는다.
㉣ 물 뿌리개로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곳에 둔다. 밤에는 보온에 주의해야 한다.

④ 밭에 옮겨심기
서리 걱정이 사라지면 밭에 옮겨심는다.㉠ 이랑 사이가 80cm 정도 되도록 고려하여 이랑이 될 장소에 퇴비를 놓는다.

㉠ 퇴비를 묻어주듯이 양측의 흙을 끌어올려 높은 이랑을 만든다.

㉡ 포기 사이가 50cm 정도 되도록 구멍을 판다.

㉢ 모종은 포트째 물에 담가 물을 흡수시킨 다음 포트에서 빼내 구멍에 심는다. 흙이 건조할 때에는 구멍에 물을 부어준 후 심는다.

⑤ 첫 번째 풀뽑기와 추비
심고 나서 1~2주일 후에 가볍게 풀을 긁어주고, 포기 사이에 거름을 한 주먹씩 놓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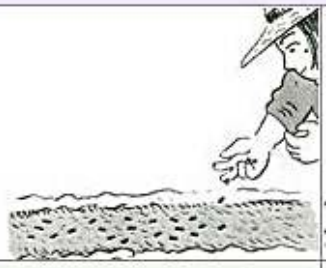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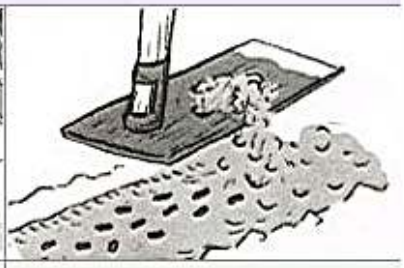
⑥ 두 번째 풀뽑기와 추비
6월 하순, 풀을 뽑고 덧거름을 준 뒤 뿌리 부분까지 완전히 짚 멀칭을 한다.

⑦ 지주 세우기
80cm 정도(더 길어도 좋다)의 막대를 한 개 꽂고 줄기를 묶어준다. 지주는 가지가 뻗어나가는 방향에 맞게 늘려준다.

⑧ 수확
7월에는 열매가 거의 자라므로 수확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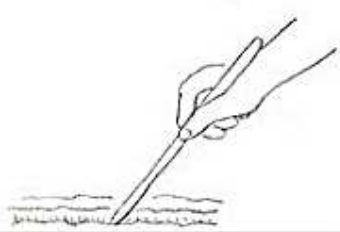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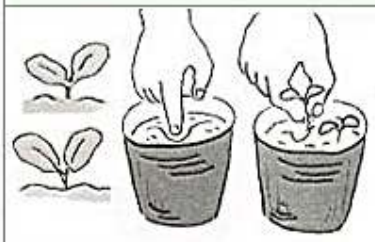
■ 당근 기르기

당근철이 언제인가 갸우뚱할 정도로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직접 키워보면 당근도 역시 맛이 제일 좋은 시기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① 씨뿌리기
㉠ 괭이 폭만큼의 고랑을 얕게 파준다.</td><td>㉡ 고랑에 겹치지 않게 씨를 떨어뜨린다.</td><td>㉢ 흙을 가볍게 덮는다.</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거름을 뿌린 다음,</td><td>㉤ 괭이의 등으로 가볍게 눌러준다.</td><td>㉥ 비가 계속 오지 않거나 흙이 메마를 때에는 물을 준다.</td></tr>
<tr><td> </td><td> </td><td> </td></tr>
<tr><td>② 첫 번째 풀뽑기와 솎아주기, 추비
㉠ 본잎이 나오면 주변의 풀을 깨끗이 뽑아낸다.</td><td>㉡ 복잡한 곳은 포기 사이가 3~4cm 되도록 솎아준다.</td><td>㉢ 그 다음, 위에서부터 거름을 뿌려준다.</td></tr>
<tr><td> </td><td> </td><td></td></tr>
<tr><td>③ 두 번째 풀뽑기와 솎아주기
풀에 치이지 않을 정도면 그대로 두어도 좋지만, 풀이 심하게 자랐을 때에는 한 번 더 풀을 뽑아준다. 첫 번째 솎아내기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어느 정도 자란 후 포기 사이가 5cm 정도 되도록 한 번 더 솎아준다.</td><td>④ 수확
굵게 자란 것부터 수확한다.
여름에 파종한 것은 겨울에도 밭에 심어둔 채 3월말까지 수확할 수 있다.</td><td></td></tr>
</table>

■ 꽃양배추(콜리플라워) 기르기

크고 하얀 꽃양배추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얀색으로 자라게 될까' 궁금했는데, 그저 꽃봉오리가 하얀색이기 때문이지 특별한 기술은 필요없었다. 누구나 커다란 꽃양배추를 기대하겠지만, 대부분은 작은 것에 만족해야 한다. 의외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① 씨뿌리기
㉠ 모종상자에 퇴비와 밭흙을 반씩 섞어넣고, 5cm 간격으로 고랑을 그어준다.</td><td>㉡ 고랑에 1cm 간격이 되게 씨를 뿌린다음 흙을 덮고 가볍게 눌러준다.
㉢ 물을 뿌리고 신문지를 덮어둔다.</td><td>② 모종 키우기
하루에 한 번 정도 물을 준다.
발아하기 시작하면 신문지를 걷는다.봄에 파종한 경우 보온에 주의한다.</td></tr>
<tr><td>  </td><td> </td><td> </td></tr>
<tr><td>③ 포트에 옮겨심기
떡잎이 완전해지면 포트에 옮겨심는다.</td><td>④ 밭에 옮겨심기
㉠ 이랑 사이 80cm, 포기 사이 50cm 가 되도록 구멍을 판다.
㉡ 포트째 물에 담근 후 한 포기씩 뽑아내어 구멍에 심는다.</td><td>⑤ 첫 번째 풀뽑기와 추비
옮겨심고 10일 정도 지났을 때 포기 주변의 풀을 뽑고 거름을 조금 뿌린다.
⑥ 두 번째 이후의 풀뽑기와 추비
그후 2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포기 주변의 풀을 뽑고 거름을 뿌려준다.</td></tr>
<tr><td> </td><td></td><td></td></tr>
<tr><td>⑦ 수확
꽃눈이 어느 정도 자라면 잘라내어 수확한다.</td><td colspan="2"></td></tr>
</table>

■ 호박 기르기

씨를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 덩굴이 길 게 뻗기 시작한다. '여기는 좀 곤란한데' 싶어 덩굴을 들어올려보면 어느새 큰 열매가 달려 있다.

① 씨뿌리기
모종상자에 밭흙과 퇴비를 반씩 섞어 넣고, 5cm 정도의 고랑을 만들어 3~5cm 간격으로 씨를 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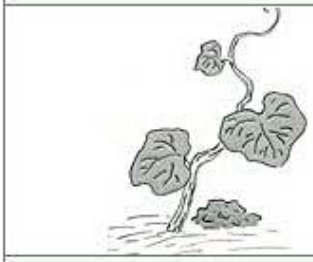
주변의 흙을 덮고 손으로 누른 다음 물을 뿌려준다. 포트에 직접 씨를 뿌릴 때에는 한 알씩 심는다.

밤에는 모종상자(또는 포트)를 집안으로 옮겨주거나, 헌 담요.종이상자 등으로 덮어준다.

② 포트에 옮겨심기
발아가 끝나면 조금 큰 포트에 옮겨심는다. 모종상자의 모종밑으로 손가락을 넣어 흙을 약간 흔들어준 다음 뽑아낸다.
③ 보온하기
5월 상순까지 밤에는 보온에 주의해야 한다. 물은 하루에 한 번씩 뿌려준다.

④ 밭에 옮겨심기
㉠ 추위 걱정이 사라지면 밭에 옮겨심는다. 넓은 장소면 이랑 사이를 1m 이상, 포기 사이 80cm 정도로 한다. 좁은 장소일 때는 포기 사이를 50cm 정도로 해도 된다. 덩굴이 뻗어나갈 장소를 생각해서 심을 장소를 정해야 한다.
㉡ 장소가 정해지면 구멍을 파고, 포트를 물에 담갔다가 모종을 뽑아내어 옮겨심는다.

⑤ 풀뽑기와 추비, 멀칭
㉠ 모종을 옮겨심었을 때에는 뿌리가 내리고 난 후에, 씨뿌리기를 했을 때에는 발아 후 주변의 흙을 긁어주고 거름으로 추비를 넉넉히 해준다.



㉡ 풀이 자라나지 않게 짚으로 멀칭한다.

⑥ 나뭇재 뿌리기
벌레가 많이 보이면 잎 위에 나뭇재를 뿌려준다. 어느 정도 더워지면 생장이 빨라져서 벌레먹은 흔적은 눈에 띄지 않게 된다.

⑦ 수확
열매가 자라 생장이 멈추고 열매 부근의 줄기가 갈색으로 단단해지면 수확한다.

텃밭 농사에 도움 되는 사이트

※ 자료출처 및 도움 되는 사이트

사단법인 텃밭보급소 http://cafe.daum.net/gardeningmentor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http://www.nihhs.go.kr

꿈꾸는 농부의 주말농장 이야기 http://landmaker.tistory.com

호원농장 http://blog.naver.com/howonfarm

신토불이119 http://blog.daum.net/kim5250/4889788

푸른 텃밭세상 http://blog.daum.net/purntutbat/1093

2016 도시텃밭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8540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4층
T.043-222-3313 / F.043-222-2479
E-mail. cjcb@kfem.or.kr
http://cjcb.ekfem.or.kr